

哲學의 一般化와 俗流化(二)

申南澈

우리는 傳統의 要因에 制約되는 만흔 生活을 본다. 그리하여 비록 主觀的으로 實現的인 態度에로나마 轉向 할 수 잇는 사람은 自力の 無氣力을 늦기 기도 할 것이고 自力の 充滿을 누리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大概는 自力에 對한 不滿과 새 發展에의 因惱를 가지고 잇슬 줄로 안다. 그리하여 이 새 發展에 對한 因惱에서는 반듯이 어저한 形態에 것으로든지 行動에까지 分化되는 推進力이 용소스칠 것이다. 그새 發展에 對한 推進力의 용소스음이 잇기 쟤 문에 因惱가 잇슬 것임으로이다. 그리하여 自力을 制約하며 規定하는 過去의 傳統的 形體를 박차고 온 티쉬한 實踐이 마련 될 것이다. 이 쟤에 비로소 光輝잇는 tun(한다)은 始作된다. 그러면 tun은 무엇인가? 이러한 tun은 現象學에서는 『아우스살텐』되는 tun이다. 『學의 哲學』에 잇서서는 認識對象의 對象 認識에 對한 關係의 後期的 結果形態라고도 말할 수 잇슬 것이다. 또한 『純粹持續』, 卽 『生命의 連關』이라고도 『生의 哲學』에서는 몰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그러케 理解하기에는 너무도 生活과 接近한 實踐的의 것이 고 水平的 次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歷史的 必然性 下에 土臺지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tun을 어저케 把持하여야 할까? 그것은 生活 그 自力이요, 生活과 不卽不離인 實踐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辨證法的 發展의 一 契機로서의 tun이라고 생각한다. 水平的 次元에 잇서서는 接近者에 對한 葛藤이고 歷史的 必然性 下에 잇서서는 先行者에 對한 葛藤이다. 이 葛藤은 必然的으로 一者의 他者에 對한 否定을 招來하리라. 그리하여 否定의 否定이 生 할 것이다. 이 否定 及 否定의 否定의 契機를 나는 tun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그 契機를 나는 tun이란 單語가 表明하는 內容과 同一한 現實的 內容을 가졌다고 생각하엿슴으로이다. 이 tun의 內容은 非論理的임을 나는 안다. 그러나 나는 爲先 나의 이 小論을 發展식히기 爲하여 다시 더 詳論 할 餘裕를 가지지 못하엿고 또 더 以上の 解決을 必要로 하지

안함으로 tun의 解釋은 이것에 쓰치라한다.

그러면 이 tun 解釋은 辨證法的 發展의 契機를 엮더한 形態에서 問題삼을 것인가 까지도 問題삼지 안흐면 아니 될 것이다. 이곳에서 wie tun? (엇더케 할가?) was tun? (무엇을 할가?)의 兩者가 問題이라고 생각한다. 前者는 論理的 解得에 對한 □造의 海澤 及 行動의 方法을 後者는 緊急한 效果的인 目的 意識에 強烈的 積極的 實踐을 指示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제부터 나의 韓氏에 對한 생각이 一端이 실마리 풀릴 것이다.

在來의 傳統的 學者 (나는 進取的인 學者들에게 對하여 그러치 안흔 學者들을 그러케 爲先 부르겠다.) 들은 細密하게 모든 現象을 分類하는 마치 圖書館의 『카드』가티 쏘는 統計學者의 『그라부』가티 術學的 煩賴에서 사러 나왔다. 勿論 그 分類는 多大한 便益을 持來하였고 쏘 單只 그 分類에만 쏘치지는 안혔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 分類 以上の 것은 되지 못하였다. wie tun? 만을 問題삼었고 was tun?은 等閑視하엿다고 was 할 수 잇슬 것이다. 方法論에서 暗中 摸索하느라고 餘暇가 업슬 地境이엿다. 『칸트』哲學에서 wie wie가 얼마나 重且大한 地位에 노혀 잇는가를 우리는 指摘 할 수 잇다. 十二의 範疇가 『如何이』 對象의 關係하는가 等の wie - 그러나 그 分類된 十二의 範疇는 『쇼팽하우어』가 嘲笑한 것 가티 盲窓(blind feuster)인 것이 잇슬만치 그들은 不自然하게도 wie를 重要視하엿다. 方法論의 純粹化가 直接의 實踐에 對하여 도음이 되기는 하겠지만은 그것의 was?에 對한 強調도 何等의 積極的 關與를 □來하지 못할 것이다. 『從來의 哲學者는 世界를 여러 가지로 解釋하엿다. 그러나 더욱 緊要한 것은 그것을 變革하는 것이다』라고 한 그 누구의 말을 우리는 以上에 論述한 것을 根據삼어 是認하는 同時에 『레닌』의 者書 『“was tun?”』(무엇을 할가?)의 意義가 祭壇에 잇는가를 理解 할 수 잇슬 것이다.